



완도 소안도 미라리 해수욕장.

완도 생일도 용출리 갯들해변.

완도 청산도 여서마을.

여름휴가 자연 그대로의 섬 완도로 떠나요

최근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2018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에 완도 소안도, 생일도, 여서도가 선정되면서 완도군이 여름휴가지를 찾고 있는 전국 민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자연 그대로의 섬, 매력 넘치는 섬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완도군은 소안도, 생일도, 여서도의 매력 홍보와 함께 보길도, 금당도까지 5개의 섬을 올 여름 찾고싶은 섬으로 추천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올 여름 힐링 휴가를 위한 섬을 소개하며 놀섬, 쉼섬, 맛섬, 미지의 섬, 가기 힘든 섬 5개 주제로 분류해 소개했다.

하루해가 다 지도록, 놀섬으로 선정된 소안도는 푸른 상록수림 속 항일운동의 성지인 섬이다.

소안도의 상록수림은 선조들의 지혜

'찾아 가고 싶은 섬' 소안도·생일도·여서도 트레킹 캠핑 제격... 힐링 휴가장소로 추천

가 어린 옛 방풍림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방풍림 속 시원한 그늘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즐길 수 있는 미라리, 맹선리 상록수림도 갖췄다.

또 돌과 나무를 이용 자연 그대로의 탐방로를 만들어 놓은 대봉산과 아부산 둘레길은 해안경관을 감상하면서 걷기에 좋은 코스다.

특히, 옛 폐교를 리모델링해 꾸며진 미라리펜션은 미라리상록수림과 인접해 있어 가족, 직장 등의 소규모 단체가 체육

활동, 트레킹, 캠핑 뿐만 아니라 해수욕도 즐기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다.

한들한들 발길 닿는 대로, 일선으로 선정된 생일도는 산책길에 세워진 '멍 때리기 좋은 곳'에서 말 그대로 편히 쉬면서 멍 때리기 좋은 섬이다.

완도군에서는 지난 2017년 3월 생일도 '멍 때리기 좋은 곳' 3곳을 선정해 소개했는데, 생일 섬길의 너털경(돌숲), 용출 갯들밭, 구실잣밤나무 숲 3곳이다.

생일도는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와

전복, 소라 등 해산물이 풍부해 맛으로도 손색이 없다. 특히, 생일도 밭상은 바다에서 나는 각종 해초류를 넣고 끓인 갯국과 함께 생선, 전복, 소라 등 해산물이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제격이다.

마음이 더 가까운 곳, 가기 힘든 섬 여서도는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는 낚시 천국인 섬이다.

여서도에 가기 위해서는 완도여객터미널에서 하루에 2회 운항하는 여객선을 타고 3시간의 뱃길을 이동해 들어갈 수 있다.

특히, 기상이 수시로 바뀌어 일주일 에 한번 배가 운항할 때도 있을 만큼 가기 힘든 섬이다.

하지만, 여서도는 제주도과 완도의 중간 지점에 있어 청정한 바다를 보우

한 섬이어서 낚시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많이 찾고 있다.

여서도에 가보면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다 속이 훤히 보이는 청정한 바다다. 또 마을의 300년 역사를 지닌 돌담은 여서도만이 갖고 있는 매력이다.

여서도 거친 파도를 맞고 자란 자연산 돌미역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특산품이기도 하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여름에 곳곳마다 특별한 매력을 지닌 소안도, 생일도, 여서도를 찾아 완도로 놀러오길 권한다"며 "이 3곳 이외에도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는 보길도, 아름다운 해안 절경이 유명한 금당도 올 여름 찾고 싶은 섬으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완도=최규욱 기자

내고장 사람들



박현식 완도
군수 권한대행은 7일 오후 7시 완도호텔에서 열리는 완도 와이즈멘클럽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 축하한다.



황인섭 영암
군수 권한대행은 7일 오전 8시30분 군청 부군수실에서 간부공무원들과 목욕터타임을 갖는다.



안병옥 강진
부군수는 7일 오후 2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2018년 제2회 군계획위원회 심의에 참여한다.

진도 신혼부부 건강 검진 지원

진도군이 행복한 결혼생활과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신혼·예비 부부 건강 검진을 확대·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자는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 또는 혼인이 예정된 예비 부부로 여성의 주민등록 주거지가 진도군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검진기관은 전남도내 소재 시군 보건소, 산부인과, 비뇨기과, 병원 등에서 가능하며, 본인부담금 중 여성은 17만원, 남성은 9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문의는 진도군 보건소 출산장려담당(061-540-6073)으로 하면 된다.

/진도=박병호 기자

넓은 집이 행복 등지로 탈바꿈

강진읍 중증장애가정 새 보금자리 마련

강진읍사무소 맞춤형복지팀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중증 장애인 사례대상자 가정에 행복동지사업을 연계, 새 보금자리 마련에 나섰다.

6일 강진군에 따르면 행복동지사업은 전라남도와 강진군, 대한주택건설협회 전남도회 등 민·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기초수급, 차상위, 저소득 소외계층 가정에 주택신축 및 주택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제, 장관, 전기, 가스 등 주거환경 개선에 중점을 뒀다.

강진읍은 올해 2월 사례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 2가구를 행복동지사업으로 신청,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2017년 송정마을 최경호 복지이장의 적극적인 의뢰로 발굴된 이씨 모자는 모두 중증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다. 화장실이 없어 외부에서 일을 해결했으며 휴과 돌로 영성하게 지은 집 외벽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큰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었으나 여건이 되지 않아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

이에 강진읍 맞춤형복지팀은 내부사례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하고 신축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행복동지사업과 연계했다.

임채용 강진읍장은 "앞으로도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활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목포 관광객 맞이 도심 '새단장'

용벽 노후벽화 디자인 개선 도심 활력 증진

목포시가 관광객 맞이 수용태세 구축의 일환으로 도심속 용벽에 설치된 노후 벽화를 새단장한다고 6일 밝혔다.

목포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노후벽화 39개소의 경관을 개선해 도시의 경관을 개선하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벽화는 타시·군의 벽화 불과 맞물려 주민 요구에 의해 획일적이고 단순하게 페인트로 그려졌다. 하지만 내구성 및 예산투입 대비 효과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노후화로 인해 퇴색되는 등 오히

려 경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목포시는 노후 벽화를 멋진 도심의 경관에 개성을 불어넣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각 마을마다 다양한 테마가 있는 디자인 개선타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목포=박승경 기자

신안 드림스타트 가족캠프 실시

신안군 드림스타트는 최근 제주도에 2박 3일 일정으로 드림스타트 가족캠프를 실시했다.

가족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캠프는 제주도 일원의 자연 환경과 다양한 문화를 느끼고 체험을 통해 가족끼리 서로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아쿠아플라넷과 광치기해

변, 비자림을 둘러보고 자전거 라이딩, 짙라인 체험,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교감과 정을 나눴다.

캠프에 참여한 한 아동은 "평소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안하는데 이번 캠프를 계기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보람있었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목포 010-3272-2765
- 011-632-0323
- 010-3635-6777
- 신안 010-4627-1472
- 영암 010-4624-8409
- 진도 010-3624-4777
- 완도 010-5619-7020
- 해남 010-8181-2627
- 강진 010-6646-1241

DK 다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공기청정기와 블루투스 스피커가 하나로!

작지만 강하게! 스테레오로 공기를 케어하다

mini air **DK**

소비자만족센터 (구입 및 A/S 상담)
1544-1154